왕비 책봉 7일만에 폐위된 '비운의 여인'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㉔

중종 원비 단경왕후 - 온릉

온릉을 방문한 날, 폭설이 내린다. 눈보라 속에서 제향이 진행된다. 동행한 사진작가 최 선생은 사뭇 흥분된 표정이다. '그림 좋다'를 연발한다. 온릉(溫陵)의 이름과는 달리 매서운 눈발 맞으며 비운의 여인이 누워 있는 능으로 향한다. 온릉은 평생을 자식 하나 없이 중종의 따스한 손길만 그리워하며 살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폭설은, 70평생 죄인의 딸이라는 멍에를 지고 춥고 시리게 살았던 여인을 따스하게 덮어주는 자비의 솜이불이 아닐까.

1506년 연산군 12년,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우의정 강구손이 좌의정 신수근에게 묻는다.

"좌상대감, 누이와 딸 중에 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의중을 모를 리 없는 신수근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처럼 내뱉는다.

"주상이 비록 포악하나 세자가 총명하니 그를 믿고 살 뿐이오."

신수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통함을 숨기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다. 신수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였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던 훈구파의 박원종이 강구손을 통해 신수근의 마음을 떠본 것이다. 신수근의 누이는 연산군의 비 신씨이고, 딸은 진성대군의 부인이다.

신수근은 '매부를 폐하고 사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반정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신수근은 성희안 등 반정세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누이와 딸은 일주일 간격으로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었다.

12세에 진성대군과 가례를 올린 단경왕후 신씨는 1506년 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왕으로 추대되자 자동적으로 왕비에 올랐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왕비 책봉 7일 만에 폐출되어 사가로 내쫓겼다. 그녀가 죽은 아버지 신수근의 원수를 갚을 것을 우려해서다. 중종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공신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왕비는 하성위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 갔다가 후에 할아버지 신승선의 집으로 옮겼다. 신승선은 성종 때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명문가 출신인 단경왕후 신씨는 왕비까지 되었다가 그러나 7일간의 짧은 영화를 끝으로 50여 년간 그늘 속에서 춥게 살다가 죽었다. 조상복, 남편복이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대답할 말이 우울하다.

중종은 그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쫓겨난 그녀가 보고 싶으면 궁궐 안 높은 누각에 올라 그녀의 본가가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다. 신씨의 집에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뒷동산 바위 위에다 신씨가 궁중에 있을 때 즐겨 입었던 분홍색 치마를 펼쳐 놓았다. 인왕산 치마바위의 전설은 여기서 유래됐다. 자신의 손아귀에 칼자루가 없었던 그는 사랑하는 지어미마저 지켜주지 못했다.

온릉은 가장 안 알려진 능이다. 서울 교외선 장흥역 근처 숲속에 있다. 변변한 안내판도 없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공개 능이라 근처 신도시 사람들도 그 존재를 잘 모른다. 능이 자리 잡은 곳은 명당이다. 그래서 능의 이름을 빌려서 마을 이름을 곧잘 붙인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능은 사릉이다. 인근 지역명칭은 능명을 차용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가 그것이다. 하다못해 갈비집 이름도 능명을 빌려온다. 그러나 온릉은 잊혀진 여인의 이름 같다.

눈발이 그칠 기세가 아니다. 제관들은 언 손을 호호 불며 잔을 올린다. 최 선생은 첫눈 맞은 초등학생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셔터를 눌러댄다. 불우한 여인의 인생 역정이 풍성한 눈발 속에 묻힌다. 여기서 서울 삼성동 정릉까지는 까마득하다. 그러나 지어미를 지켜주지 못했던 중종의 넋이 오늘만큼은 이 언덕 언저리를 맴돌 것이다.

반정공신들에 의해 꽃다운 스무 살에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는 남편이 왕이 되었지만 거창 신씨라는 혈연으로 말미암아 고모인 연산군 부인 신씨와 함께 폐비라는 운명을 같이 했다. 그녀는 아버지 신수근을 원망할까? 가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역사다. 신수근이 반정에 가담했다면,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백설 분분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아버지는 중종반정 반대로 죽임 당하고 반정 공신 압력에 왕비자리도 빼앗겨 70평생 '죄인의 딸' 멍에 속 불행한 삶

온릉(溫陵)은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1487~1557) 신씨의 능이다. 중종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부친 신수근이 반정에 참살되어 죄인의 딸은 왕비로 부적합하다는 반정공신들의 주청으로 책봉 7일 만에 폐출되어 사저로 쫓겨났다. 폐비 신씨는 자식 없이 1557년(명종12) 12월 7일, 71세로 승하했으며, 친정 묘역인 이곳에 장사지냈다. 명종은 큰어머니뻘인 신씨 장례에 장생전 관목을 내려 1등의 예로 장사지내게 하고 신수근의 손자 신사원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1698년(숙종24) 현감 신규가 상소를 올려 노산군(단종)과 함께 복위할 것으로 주청했으나 조정의 의견이 분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숙종은 연경궁 옛터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수는 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739년(영조15)에 비로소 복위되었다. 새로이 상설을 설치하면서 추봉된 왕비릉인 정릉(태조 계비 신덕왕후),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상설을 따랐다.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고 능침 주위로 석양과 석호 각 1쌍을 배치하고 혼유석 1좌, 양측에 망주석 1쌍을 세웠으며 3면의 곡장을 설치했다. 한단 아래 문인석과 석마 1쌍씩, 중앙에 장명등이 있고, 능 아래 재실이 있다.

사적 제210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 면적 21만6711㎡(6만5670평).

불교의식(범음 범패)수강생모집

본 대학 연구원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1기)**

1. 서울지역 수강안내
◆개강일자 : 2008년 1월 7일(월) 오후 3시(목탁 지참)
◆출 강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본대학
◆통 신 : 지방 거주자(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수강안내
◆개강일자 : 2008년 1월 5일(토) 오후 1시 30분(목탁 지참)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1시 30분 ~ 5시 30분(4시간)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1기)
5.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산상 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해상 기도 법회
덕적도 밧지름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